

광주 광산구 삼도동, 벼랑 끝 은둔 어르신에 ‘따뜻한 봄날’

사업 실패 후 큰 부채 떠안고 가족과 단절된 채 생활 동·지사협 힘 모아, 주거 환경 개선·돌봄 연계 지원

장기간 세상과 단절되고, 약취와 쓰레기 가득한 공간에서 생활하던 어르신이 광주 광산구 삼도동(동장 유대선)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삶의 온기를 되찾았다.

삼도동은 최근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박모(82) 어르신을 알게 됐다. 어르신은 사업 실패 후 큰 부채를 떠안고 가족과 단절된 채 누울 공간 없이 쓰레기 더미가 쌓인 문중 재각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오래 방치된 물건,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악취가 심한 상태로, 지난겨울에 수도가 동파돼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여건이었다.

이대론 어르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삼도동은 동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와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처음엔 어르신이 청소를 거부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삼도동 지사협의 끈질긴 설득으로 어르신이 마음을 열었다.

우선 삼도동 지사협은 광주+광산형 통합돌봄과 연계해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대청소하고 방역·방충 작업을 벌였다. 집 안팎 각종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데만 장장 4시간이 걸렸다.

삼도동은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에게 전기매트, 전기가스레인지 등을 지원하고, 상수도를 복구했다.

지역 기관도 힘을 보탤다. 삼도동에 있는 복지시설인 ‘호연실버홈’은 묵은 이불, 옷가지 빨래를 도왔고,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은 새 이불을 후원했다.

이처럼 삼도동 곳곳에서 이어진 손길로 박모 어르신이 살던 곳은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삼도동은 앞으로도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식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대선 삼도동장은 “지역 여러 기관·단체가 합심해 어르신에게 세상의 따뜻한 정을 전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어르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외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함평군,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

옥동마을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함평군은 최근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차량이 대동면 옥동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과 함평군의 협업으로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미용, 보건,

복지, 문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함평군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옥동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구강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와 손톱관리,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옥동마을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이 마을까지 직접 찾아와 건강도 살펴주고 마사지와 머리 염색,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전남행복버스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담양군,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으로 치매 예방 ‘앞장’

치매 진단 어르신에겐 치료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담양군이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 안내문을 60세 이상 7,600세대에 우편 발송했다.

특히 올해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대상자 중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주민에게 전화로 치

매 조기 검진을 안내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검진도 병행하고 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할 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질병이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치매가 걱정되는 주민은 누구나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지소(진료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은 지난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 6,700명을 검사했으며, 176명에게 치료를 연계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과 치료비,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워터와 가족 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담양=백종영 기자

unesco
World Heritage site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장성군
Jangseong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장성 필암서원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